

신임 교무처장에게 들어본 e-TL 도입의 의미와 과제: 김완진 교무처장 인터뷰

특집

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e-TL(e-Teaching & Learning)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교무처이다. e-TL의 도입 이유와 확산 방안, 앞으로 e-TL이 나아가갈 방향을 김완진 교무처장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.

e-TL은 현재 전세계 2,000여 개 대학에서 쓰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입니다.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인데요, 서울대가 e-TL을 구축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외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, 왜 도입을 했으며,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말씀해주시죠.

서울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

교무처장으로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 생각에는 e-Learning이라는 것이 사이버 강의, 온라인 강의를 위한 것이다. 이렇게만 생각했어요.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우리의 현재 수준에서 완전히 사이버상으로만 하는 강의를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게 되죠. 또 많은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.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, 아직 우리 대학에서 완전 온라인상으로만 사이버 강의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보다는 오히려 e-Learning의 방법과 역할이 현재의 오프라인 강의를 질적, 양적으로 보다 업그레이드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. 실제로 서울대학교 e-TL은



서울대학교 김완진 교수처장

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.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그것을 보조하는 자료로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, 이것은 이제 대학교육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대에 이러한 본격적인 시스템이 도입된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지만, 이제라도 이 좋은 시스템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교무처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e-TL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?

조교 위주 수업의 의무화와 강의평가 및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도 검토 중

우리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의무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이번에 e-TL

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무처에서 시행했던 것처럼, TA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TA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e-TL을 활용할 수 있겠지요. 또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어서 e-TL이 확산되면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수님들이 쓰시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. 내년 1학기는 의무화하기보다는 이러한 관점으로 확산을 유도할 생각이요, 만약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내년 2학기부터는 e-TL의 활용 정도를 교수님들의 교육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 그리고 TA들에 대한 워크숍을 이번 학기에 실시했었는데, e-TL 워크숍을 이수하지 않으면 TA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. 이것은 교무처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에요. 이제는 TA를 하려고 하는 학생은 학기 시작 전에 e-TL 워크숍을 수료해야만 발령을 받을 수 있고, 학기 시작 후에 TA를 맡은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발령 받고 2주 내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수증이 없으면 TA를 못한다고 해야죠.

사실 이러한 문제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빠르게 보급되기가 어렵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강의평가나 우수교육상 시상과 같은 것들도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,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e-Learning 활용 상황과 같은 항목을 넣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. 현재 20%대의 사용률이 나오고 있는데, 다음 학기에는 50% 정도 이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.

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e-TL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네,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예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칭찬을 받은 곳인데요. 향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



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-Learning 지원부팀장 선임연구원

스나 활동들을 보다 많은 교수님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확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특히 e-Learning에 관해서도 몇 가지 전문적인 질문들이 나왔었는데,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 역시 서울대가 e-TL이라는 e-Learning 시스템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회 여러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확산 방안들의 효과를 보고 추후 다양한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.

e-TL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교무처장으로서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Blended e-Learning의 확산을 교무처의 역점 사업으로

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e-Learning의 현재 기본 정책은 블렌딩입니다.

다. 100% 온라인 강의로 가기보다는 일단, 오프라인 강의를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는 수준에서 그러한 활동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가능하면 많은 교수들이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확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, 지금 목표는 2년 내에 70~80%의 사용률을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. 특히 젊은 교수님들은 100% 모두 쓰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강의평가에 이 e-TL 활용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.

지금 e-TL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학교육의 주체와 관계자들이 e-Learning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고,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귀찮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. 이러한 부분에서 교무처에서는 e-TL을 매우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e-TL을 통해서 교육정보화도 더욱 쉽게 이룰 수 있고 대학교육의 질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**☞**

인터뷰 이해정 (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-Learning 지원부 선임연구원)

특집

e-Learning 베스트 강좌:

한무영 · 김지현 교수 인터뷰

서울대학교에 새로운 교수학습관리시스템 e-TL을 도입하여 운영해온 지도 반학 가지였다. 이에 e-TL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강의를 선정하여 교수님들의 강의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회를 가졌다.

‘물의 위기’: 한무영 교수

먼저 서울대가 초교육원의 ‘물의 위기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의 한무영 교수를 만났다.



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한무영 교수